“소외된 약자와 고통받는 중생 보듬고 정진할 터”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이후 한국불교 새 중흥의 의지를 다지며 분야를 넘나드는 광폭행보와 열린 소통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우 스님은 本紙와의 인터뷰에서 원력과 다짐을 밝혔다.

정리=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일거수일투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월 5일 봉행된 취임법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빈과 대중이 운집해, 한국불교의 발전 가능성과 새로운 위상을 확인하는 법석이었다는 평가다.

진우 스님이 한국불교 중흥을 위해 제시한 청사진에 대한 여론도 긍정적이다. 실질적인 해법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불교계를 넘어 탈종교화 및 종교인구 감소로 고착화 수순을 밟고 있는 종교계에도 새로운 활력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취임 이후 한국불교 새 중흥의 의지를 다지며 분야를 넘나드는 광폭행보와 열린 소통으로 누구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진우 스님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本紙 창간 28주년을 맞아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스님의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고민과 원력, 총무원장으로서 보다 깊은 속내를 듣고자 했다.

인터뷰는 서면과 대면으로 진행됐다. 소탈하고 진솔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묵직한 무게감이 전해졌다. 진우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이 지닌 본연의 가치에서 한국불교의 나아갈 방향을 확인했고, 그 본질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과정이 곧 한국불교의 새 중흥을 이끄는 토대라고 봤다. 중생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불교의 역할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현 시대에 맞는 포교전략을 구상했고, 그 길을 사부대중과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획실장 성화 스님은 진우 스님을 일컬어 “준비된 총무원장”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의 공약 하나하나가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진우 스님은 그동안 종단 내 두루 맡아온 소임을 통해 쌓아온 신뢰, 두루 원만하고 소탈한 성품, 37대 총무원장으로 당선된 이후 보여준 행보와 종책 공약 등에서 두루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구본사 본말사 주지와 중앙종무기관 소임을 두루 거쳐 종무행정에 대한 이해가 밝을 뿐 아니라 총무원장 권한대행을 맡아 혼란한 종단을 빠르게 안정시킨 이력도 주목된다. 결국 스님이 수행자로서 보여준 행보가 종도들의 신뢰와 기대를 모은 토대인 셈이다.

불교계 안팎의 관심을 한 몸에 받으면서도, 정작 스님은 의연한 모습이다. “그저 수행자로서 살아온 바대로, 해야 할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부단한 정진을 약속했다. 총무원장 소임에 임하는 각오 역시 거창한 포부보다는, 한국불교 위기 극복에 대한 굳은 의지와 다짐으로 대신했다.

진우 스님은 “매순간 최선을 다해 정진하다보면 4년 후에는 한국불교 혁신과 중흥이라는 작은 물꼬를 트고 한국불교 역사의 물길을 조금이나마 바꾼 총무원장으로 기억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온 정성을 다해 종도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현대화와 변화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매일 새벽 조계사 대웅전에서 108배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의미도 물었다. 특유의 웃음과 함께 “수행자가 절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상이어서 특별할 것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수행자가 절을 하는 것에 이유가 있나요. 그저 오랜 습관처럼 으레 해오던 일상이어서, 집무시간 전 개인적인 일정으로 지속해 나갈 뿐입니다. 다만 한국불교 새 중흥을 위한 정진을 다짐하면서 그에 대한 원력도 좀 담았지요(웃음).”

취임법회 후 대중에 관심집중
불교 발전 일궈낼 청사진에도
긍정적 평가 · 기대 한 목소리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우 스님의 선택은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여정이다. 동시에 불교 본연의 가치와 역할을 알고 되살리기 위한 노력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약자의 동반자가 되고, 고통받는 중생을 보듬으며 묵묵하게 정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이유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거대한 신심의 물결 속에, 저의 작은 원력 하나를 보태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1문1답 전문이다.

Q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결집했습니다. 종도들의 합의추대로 무투표 당선된 첫 총무원장이신만큼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듯한데,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마음 그리고 각오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A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국 각지에서 취임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걸음해 주신 여러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희망을 봤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를 지탱해 온 원력들이 그 속에 성성하게 살아 숨 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소탈함 이면에 ‘묵직한 내공’
큰포부보다 소통 · 실천 다짐
매일 새벽 108배로 하루시작

저에게 있어 취임법회는 함께해 주신 사부대중의 원력을 잊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의 법석이었습니다. 신심 어린 합장, 그리고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신 그 모습에서 벅차오르는 희망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국불교 중흥을 발원하는 거대한 신심의 물결 속에, 저의 작은 원력 하나를 보태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이 보여주신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력이 모여 만들어낸 이 거대한 신심의 물결에 기대어 정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화합된 종단의 힘으로, 한국불교의 새 중흥을 일궈내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Q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한 달여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큰 소임을 앞두고 공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A 당선인 신분으로 보낸 이례적인 시간에 대해 묻고 듣고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했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 소임을 거치는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던 스님들의 고견을 듣고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소통과 포교, 교구라는 종책 기조를 설정했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경청의 자리를 많이 만들고자 했습니다.

종단 차원에서도 당선인 신분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례가 없어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분들도 워낙 많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소통하고 여러 조언들을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충분히 듣지 못한 아쉬움은 열린 집행부, 소통하는 총무원장의 자세로 하나하나 채워나갈 생각입니다.

당선이 확정된 후 감사하게도 때 이른 축하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격려가 그동안 일궈온 한국불교 미래에 대한 신념을 확고히 하고 원력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28주년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 본사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 유 대종사
주 지 보 운
신도회장 박수관

범어사 사부대중일동

문 의 | 종무소. 051)508-3122 원주실. 051)508-3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www.beomeo.kr